민족동아 15대 총여학생회 평가

0. 2000년 민족동아 여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며

어떤 사업과 투쟁에 있어서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총화과정을 밟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그 사안에 대한 성과를 계승할 수 있고, 한계가 노정된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이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평가사업은 그것이 시기적 평가이든 사안별 평가이든 성과를 내실있게 챙기고 그 성과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도출되는 한계는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면서 자주적 학생회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민족동아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면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하고 그릇된 점은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년의 사업과 투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평가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평가라는 것이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평가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역대 총여학생회 일년의 평가서를 보면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단순히 성과를 계승하지 못하고 한계를 올바로 짚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다음 해 총여학생회의 투쟁과제 도출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형식적이고 평가서만으로는 그 해 총여학생회의 투쟁과 사업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과는 다를 것이다. 평가에 임하는 주체가 얼마나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의 내용이 다음 해의 전체 정책과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자주적 학생회의 근간은 바로 학우대중이고 우리 민중들이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역시 얼마나 학우들을 중심에 두고 투쟁과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한계와 극복과제 도출에 있어서 일꾼중심, 학생회 내부만을 들여다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하게 학우대중과 민중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의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할 것이다.

1. 총평

올해 총여학생회의 총적기치는 기층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조직력의 강화였다.

민족동아 내 여학생운동의 현실을 짚어보면 예년에 비해 여학생 운동을 고민하는 조직이 많이 없어졌고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운동을 할 인자를 재생산하는 구도에 일정정도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전체 민족동아 조직 내에서 여학생운동을 할 인자를 발굴하고 조직을 재건할 것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두고 총노선에서도 기층강화와 조직력 복구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단대 여학생회에 대한 지도와 소모임 및 기층 강화에 있어 직·간접적인 지도사업을 통해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단대 학생회와의 만남을 통해 단대 내 여학생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조직하려 했었고, 이를 통해 인자 발굴 및 핵심일꾼 발굴에 주력했다.

단대 여학생회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대신동 지역에 자주적 법대 여학생회를 건설하였고, 체대 여학생회 역시 이래적으로 대중사업을 통해 일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되는 성과가 있었다.
경영대 여학생회가 없는 현실에서 경영대 여학생회 소모임을 지도하면서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소모임 운영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면서 소모임 지도에 대한 상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민족동아 내에서 여학생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자세를 안에서부터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총여학생회 내에 소모임을 두면서 한 분야에 있어서 내실있게 의·조직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앙에서 소모임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해 총여학생회의 '진달래'는 수적으로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지만 그 발전가능성을 아주 높이 보고있고, 이후 소모임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단대 학생회에 들어가서 사안별로나마 여학생운동에 대한 공유나 해설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이것은 사안별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대중투쟁으로의 외화나 의식화에 있어서 여학생운동에 대해 전체가 고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한계를 겪게했다. 여학단위 재건이라는 대의 하에 전체 일꾼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공유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전체적으로 2000년 민족동아에서의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한해였다. 앞으로는 총여학생회 중앙만의 고민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운동의 대중화로 가는 그 길에서 총여학생회 역시 그 몫을 제대로 해 낼 때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있을 것이다.

2. 조직적 영역에서의 평가

(1) 총여학생회 조직생활

총여학생회는 민족동아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와 총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앙단위이다. 민족동아 여학생운동의 최고 사령탑으로서 올바른 중앙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단위 지도사업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만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발전전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중앙조직답게 그 면모를 갖추고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단위 일꾼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의·조직화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조직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겠다.

1) 지위와 역할에 맞는 활동에 대하여

적은 수의 일꾼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공이 많아 깊은 고민을 가져 갈 수

없었다. 특히 대표자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대중인 대중을 만나고 직접 의식화, 조직화하여야 함에도 많은 실무하중과 대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있게 대중을 만나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일꾼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했다. 일꾼이 수가 적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겠다. 항상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각인하며 풍부한 고민속에 강단지게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2) 조직생활에 대하여

조례, 종례를 기본으로한 조직생활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 조직생활의 기본은 조·종례를 통한 계획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올 한해 총여학생회의 큰 한계가 바로 정연한 조직생활 속에서 사업과 투쟁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단위 지도사업과 총화, 투쟁의 계획과 점검이 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원회의시간의 보장되지 못하여 분공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상집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인 한계속에서도 많은 성과점이 있었지만,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조직생활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중앙에서 풀리는 내용에 대한 공유 집행정도

총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에 대해 공유하고 깊은 논의와 평가가 진행되면서 전체운동속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여학생운동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얕은 상황에서 중앙의 사업과 투쟁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모습이 강했다.

단위에 대한 지도나 총화에 있어서도 중앙의 사업과 투쟁을 올바로 요해하고 여학우들에 근간한 투쟁을 창조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여학생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는 것은 총여학생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했던 한계가 컸다.

4) 총여학생회에 맞는 회의 구도와 분공에 대하여

일꾼의 수는 적고 해야 할 일은 많으므로 그만큼 회의 구도가 정연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를 기본으로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 각 국별 세로 모임이 있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단대 여학생회 마다 일꾼상황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세로모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처음 일꾼의 부족으로 전원회의 구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 상집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앞으로 전원회의를 통한 회의의 안착화로 안건의 선정을 적절히 하고 일꾼 전원이 모든 사안을 총화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며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는 총여학생회 안건에 대한 고민이 깊이 되지 않고 단위 대표자의 대표자다운 자세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위 자체의 논의 수준이 떨어졌다. 그로 인해 총여학생회사업에 대한 분공과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총여학생회의 좀더 세심한 지도와 중앙운영위의 책임성과 적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극복될 수 있다 하겠다. 각 국별 세로모임은 한사람에 한가지 이상씩 맡고 있다. 제각기 따로 여러 가지 세로 모임을 하다보니 전원회의 일정이 잘 잡히지 못하고 제때에 총화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단위 실정에 맞는 일정 조절과 회의시간 보장이 필요하다.

(2) 단대 여학생회(위원회, 부), 소모임 등 기층 강화에 있어서

단대 여학생회와 소모임 등에 대한 지도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핵적 사안이다. 단대 여학생회에 대한 지도사업은 하방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중앙운영위를 통한 사업과 투쟁의 해설정도 였다. 올 하반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를 확대운영위로 개편하면서 경영대 여학생회 소모임 햇살이 중앙 회의에 결합되었고, 그 속에서 전일적인 지도를 하려했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단

위마다의 고민 수준이나 편차는 있겠지만 고민을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는 햇살이 전체 사업계획을 회의를 통해 지도를 받음으로써 일정정도 소모임 운영에 있어서 체계를 발동하고자 하였다.

단위에 대한 지도는 집중하방을 통한 전반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올 한해는 하방사업에 대한 정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햇살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다. 지도방법이 상당히 분절적이었고 일관성이 없었다. 햇살 정기집회 참관, 투쟁에 대한 해설정도였지 생활적으로 묶이지 않다보니 총여학생회와는 일정정도의 거리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햇살 구성원 개개에 대한 총화나 햇살 상황 전반에 대한 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었다. 대중사업이나 대중투쟁에 결합되는 수준도 극히 미비했다. 하반기에는 햇살의 총화방도를 경영학부에 일정 다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여학단위로서 총여학생회와의 끈을 놓쳤다 할 수 있다.

상반기 반미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의·조직화 사업의 모범을 창출하였으나 후속작업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일정 하달식이어서 총여학생회와의 일정 거리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진달래는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상대로한 의식화 사업과 체대 일꾼들을 총화하는 성과를 낳았다. 두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명밖엔 남지 않았지만 총여학생회로 계속 묶이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단편적 지식만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진달래 구성원 그 개인에 대한 지도나 담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달래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위와 소모임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는 그 단위 마다의 전문성과 자립자활력을 높일것에 대한 고민을 주로 고민해야 한다. 일정정도 단위사업은 단위 실정과 역량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에서의 사안별 지도는 정연하게 들어갔다 할 수 있다.

여학일꾼 토론회의 경우 주제선정이나 자료준비, 토론방법 등에 대한 규제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반기 대신동의 두리두리 내에서 법대여학생회와 사회대 여학생위원회가 준비한 청실홍실에 있어서 단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은 성과적이라 할 수 있다.

(3)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에 대한 평가

중앙운영위는 회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는 총여학생회의 모든 사업과 투쟁 뿐 아니라 동아대 전체의 사업, 투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총화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15대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는 그러한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하지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1) 안건상정의 적합성 문제

총여학생회 만의 논의안건이 거의 없었다. 부경여대협의 내용이 총화되지 못했고 전문성에 대하여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총여학생회 사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 중앙운영위 공간에서 풍부히 논의할 수 있도록 담보해내지 못하였고, 단위의 사업도 중앙운영위에서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보고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2) 논의수준

풍부한 고민속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앙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많았다. 총여학생회에서 안건해설이 미리미리 되지 못하고 정확한 정세인식과 사업계획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중사업, 대중투쟁에 대한 핵심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단위 여학생회 대표자 또한 올바른 대중관과 대표자관이 부족한 관계로 주체적으로 논의에 임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총여학생회에서 단위 여학생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사업이 전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있다.

3) 의결된 안건에 대한 단위 집행정도

논의를 주체적으로 임하지 못하면서 집행에 있어서도 단위와 실정에 맞는 창조적이 방법으로 해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 . 또한 총여학생회에서 단위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되지 못해 총여학생회 중심으로 모두 묶이지 못하고 단대내 집행력을 높일 것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4) 중앙운영위 활동에 대한 평가

대표자 활동의 중심은 대중을 만나고 대중속에서 총여학생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자 활동에 대한 중앙에서의 지도가 부족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대중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여학생회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단위의 실정에 맞는 창발적인 고민이 되지 못하면서 의식화,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사상적 영역에서의 평가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전면화

지금까지의 전체 학우대중들을 비롯한 우리 일꾼들에게 조차도 부문계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총여학생회의 모습이었다. 그로 인해 나타났던 많은 한계와 오류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 골간과의 간담회를 기본으로 전 단위에 주체를 세워냄과 동시에 여학생운동 일꾼들을 단련시키면서 총여학생회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였다.

올 한해 총여학생회 사상영역에서의 총노선은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전면화였다. 하지만 늦은 학생회 건설과 일꾼의 부족에서 오는 실무하중으로 고민을 깊게 가져가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조직화와 사업속에서 전문성을 녹여내지 못했다.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투쟁과 일정을 사수하는 것만도 어려움이 있었다. 작은 대중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여학우대중에 기반한 투쟁을 만들어가지 못한데에 대한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전일적으로 이루는 방법은 골간체계를 발동하고 그 속에서 의·조직화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올 한해는 골간에 대한 담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에서 사안별로 해설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단위로 직접 들어가 일꾼들에게 의식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운동의 대중화라는 기치에 일정 벗어나는 한계를 낳았다.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것은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있어서 선결조건을 갖추지 못한것과 같다. 학습구도를 정연하게 꾸리고 일상적인 정세토론과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실천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기본으로 한 사업과 투쟁이 전개되어야만이 진정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구도 . 일상적 정세토론 . 정세인식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실천과제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4. 대중적 영역에서의 평가

학우 대중 조직으로서 총여학생회 일년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대중의 정서를 올바로 파악하고 자주적 학생회로서 여학우 대중의 자주성을 발양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중사업을 땐실하게, 뿐때있게 해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우를 만나고 그 속

에서 그들의 고민을 제대로 총화하고 자주성을 발양할 수 있도록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대중조직으로서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대중속에서 살아숨쉬는 총여학생회로서의 면모를 돌아보는 것은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1) 대중 의식화 영역

대중을 상대로 의식화 사업을 펼치는 것은 총적기치에 기반하여 학우들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총여학생회는 대표자 중심으로 대중을 만나는 과정은 부족했지만 다방면으로 대중을 만나고 의식화하련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선거이후부터 매달 2회씩 발행한 <여대생>을 통해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담았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해설에는 미흡했지만 사안별로 대중들에게 의식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컸다 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유인물이 있다는데에서도 학우들에게서 신선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학우들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쉽게 총여학생회로 올 수 있도록 비오는 날 우산을 빌려준 사업은 일상사업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를 낳았다.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총여학생회로 올 수 있었고, 일꾼들만의 여학우들만의 학생회가 아니라 민족동아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대중조직의 모습을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총여학생회로 직접 찾아오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투쟁에 대한 해설을 직접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여학생 휴게실에 구급약을 비치했던것도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방도였다. 하반기 의약분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행하진 못했지만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의 입담거리가 되고 총여학생회로 다가오는 자세나 방법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사안보다는 일상적으로 총여학생회로 다가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대중 조직화 영역

상반기 반미토론회와 하반기 여학일꾼 토론회를 통해 여학단위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접근과 조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반기 햇살은 반미토론회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되었고, 평소 잘 묶이지 않던 햇살의 대부분이 조직화되면서 햇살의 조직적 성과를 낳았다.
하반기 여학일꾼 토론회는 민족동아에 있는 여학단위가 함께 준비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토론회 당일 체대여학생회가 결합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준비과정을 함께 하면서 체대에서 준비한 주제에 대한 고민과 공유가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토론회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골간 일꾼들도 함께하면서 총여학생회에서 전개하는 투쟁의 내용을 함께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 대중 투쟁 영역

상반기 총여학생회에서 전개했던 투쟁은 거의 전무했다.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하반기 이를 극복하고 대중투쟁을 창출해 낸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투쟁을 전개하면서 처음으로 수요선전전을 진행했다. 비록 일회적이긴 했지만 대중을 만나는 또 다른 장을 총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했다는 성과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하반기 일본군 성노예 전범 민족동아 학생법정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바로 전국순회 수요집회를 부산에서 진행할 때 조직적 성과로 남았다.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의의는 바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있게 대중을 만나고 그 속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4) 사업별 평가

1) 봄농활

민족동아 전체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농활을 수행하였다.

농활의 꽃은 분반활동이며 봄농활은 여름농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실사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의 바쁜 일정속에서 고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한 단위의 분반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위 자체에서의 실정에 맞는 창발적인 고민과 활동이 보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단위 분반주체의 교양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정리하면 사전준비 작업이 미흡함으로 인해 목적과 의의에 맞는 분반활동이 되지 못하였다.

2)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

반미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을 기치로 거리전, 영화제, 성조기 밝기, 성조기가 그려진 옷 바꿔주기가 있었다.

총학생회의 반미주간과 일정이 겹침으로 인해 총여학생회 사업이 부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사업과 의식화 흐름을 같이 함으로써 학우 대중에게는 범국민 반미항전이라는 정세에서 반미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었다.

거리전에서는 반미의 내용으로 주한미군 범죄, 기지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을 다루어었는데, 주한미군범죄 사진을 확대하여 전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효과있게 의식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고, 일주일이라는 계획한 기간에서 이틀이상 전시가 늦어지고 실제로는 2~3일 밖에 거리전을 진행하지 못했다.

영화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낮은 목소리 1>을 상영하였는데 관람하는 학우가 거의 없었다. 구체적대중의 조직화가 되지 못했고, 무작위 대중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이 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

성조기 밝기에서는 초대형 성조기를 제작하여 대중사업의 통큰 계획과 실천이라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고,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한 의식화 효과를 극대화 시켰고, 학우대중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중사업으로써의 의미를 살린 사업이었다.

성조기가 그려진 옷바꿔주기 행사는 홍보부족으로 행사당시에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1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우들이 직접 총여학생회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학우들이 가졌던 총여학생회에 대한 거리감을 일정정도 해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옷을 바꾸어 준다는 것이 학우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였지만 왜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선전과 의식화가 부족했다.

3)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출범식에 대하여 의식화, 조직화가 미리미리 진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학번과

새내기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했으며 한총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일정을 다 사수한 후배들이 적었고, 사전 교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준있는 의식화가 되지 못했다. 햇살 정기집회 공간에서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평가와 총화사업으로 한총련 사업과 투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정리하면 모든 사업의 준비과정에 있어 전문성을 녹여내기에 부족했으며, 체계적이고 정연한 계획속에 사업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가 되지 못하고 총여학생회만의 치루어내기식의 사업이 된 면이 있다. 또한 대중사업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새내기 의식화, 조직화도 실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정확한 의의와 목표 속에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를 진행하고 무작위 대중에게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사업이 되도록 깊고 풍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4) 여성주간

일년을 총화하는 여학우들의 대동의 장으로서 하반기에 <여성주간>을 진행했다.

학우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모습을 수기공모를 했다. '나는 이럴 때 여자/ 남자이고 싶다' 라는 주제로 수기공모를 했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진만 좋은 내용의 글이 접수되었고, 학우들의 여성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반기 때 진행했던 "성조기를 벗어라"의 연속선상에서 반미광장을 구성했다. 학교에 있는 자갈마당을 반미 광장으로 꾸미고 학우들이 바꿔간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전시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전시장 답게 꾸미진 못했지만 자신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을 직접 전시함으로서의 전시효과가 컸다. 그리고 주변에는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여성 민중의 대자보 영정을 마련해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성과를 낳았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던 여성문화제는 여학우들이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동아리의 공연을 섭외, 진행하고 문화제 속에서 수기공모 시상식을 진행했다.

2부 행사로 여성가요제를 진행했다. 12팀이라는 많은 학우들이 가요제 신청을 하였고(개인적 사정으로 실제로는 10팀 참가) 수준 높은 가요제 진행으로 많은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여성문화제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하다보니 준비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며 내용적으로 채울 것을 고민한다면 다음 해부터는 보다 수준높고 많은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5) 일본군 성노예 전범 민족동아 학생법정

총여학생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소모임 "진달래"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전범 민족동아 모의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의·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법정을 성사했다. 평소 대중사업을 통해서나 평상시에 잘 묶이지 않던 체대여학생회 일꾼들이 조직화되었고,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모여 법정 준비단을 만들어 주체적으로 학생법정을 준비해나갔다. 이 모의 학생법정은 성대하게 무사히 끝마쳤고, 준비단 스스로 법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6) 성폭력 없는 주간

학원성폭력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동아대내에서의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없는 주간>을 선포했다.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사업을 하고, 학원성폭력 신고엽서를 제작하고 학원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실질적인 실태조사 작업은 되지 않았지만 학원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작업은 일정정도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총여학생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대중 의식화 사업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학원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총여학생회에서 제작한 성폭력 예방 수첩 내지는 학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실음으로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는데 한 몫을 했다.

이것은 특별한 대중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의식화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2001년 총여학생회 선거의 의의

'2001 16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설의 의의

1. 2001년 민족의 자주시대, 여성의 자주 시대를 만들어 나갈 주체를 공고히 하는 선거이다. 내년의 총여학생회 대표자들이 학우들 속에서 가장 먼저 검증받는 공간이 바로 선거인 것이다. 자주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선거 때부터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중심을 틀어쥐고 여학우들을 만나나가며 학우들을 자주적 여학생회로 묶어내야 한다.

2. 민족동아 총여학생회가 부경여대협과 전여대협에서 핵심다운 학교로 거듭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열악하고 힘들어져만 가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 조직상황에서 여학일꾼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모범을 전파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학우들 속에서 전면화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3.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임무는 우리의 대중인 여학우들의 자주성을 높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주적 여학생회의 존립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학우들을 학원의 주체로, 자기 삶의 주체로 세워내는 유력한 공간이 바로 이번 선거이다. 올 한 해의 성과를 학우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1. 학우대중이 주인이라는 자세를 학우대중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부족한 것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학우를 만나야 할 것이다. 그 학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속상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2. 같은 H_2O라도 얼음과 물은 차이가 있다.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썰매로 건너가야 할 것이고, 액체 상태로 있다면 배로 건너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우를 만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 그 사람에 맞게 만나는 것이 옳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자주성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지만 각자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에 대중을 만나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다.

3. 선거에 내가 주인이라는 입장으로 성실히 임하자. 16대 총여학생회를 선봉에서 건설하고 지켜나갈 사람들이 바로 선본 식구들인 것만큼 학우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책임감으로 헌신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학우들은 총여학생회를 평가할 것이다. 스스로 모범이 되어 학우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가자.

16대 총여학생회 건설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하는 동지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